복지사각지대 나홀로 노인들 '겨울이 무섭다'

경직된 기준에 묶여 힘든 생활로 고통 여전

목포 자살 노부부 등 정부 복지정책 겉돌아

담당 공무원 업무량 폭주…인원확충 등 절실

심정희(가명·여·76) 할머니는 텅 빈 연탄 창고를 볼 때면 불안함이 가득하다. 올 겨울을 보내려면 연탄 600장이 필요한데, 남은 건 고작 40장 뿐이다. 연탄 한 장당 500원. 30만 원이면 되지만 이마저도 마련할 길이 없다. 환청에 시달려 바깥 일을 할 수 없는 아들(41)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혜택도 제외됐다. 남편(76)도 최근 허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심씨 부부가 받는 노인연금 15만원으로 세 가족 한 달 생활비를 해결해야 한다.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저소득층 등 빈곤층들은 올 겨울이 그 누구보다 두렵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싶어도 각종 규정에 묶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혹독한 추위만큼이나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나마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해 현장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보니,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100조가 넘는 엄청난 복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채 고통받고 있는 영세한 서민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 30일 현재 기초생활보장대상자·장애인·만 65세 이상 노인 등 정부 복지 혜택 대상자는 87만5037명이다. 그나마 이들은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는 시·도민들로, 갖가지 규제에 걸려 복지 서비스 대상자에서 탈락한 채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영세 서민들이 적지 않다는 게 복지기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부 복지 서비스조차 누리지 못하다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기도 한다.

지난 11월 23일 김모(82)씨는 목포시 목원동 주택에서 허리 디스크로 거동할 수 없는 부인 신모(여·69)씨를 돌보다 자신이 뇌출혈로 쓰러져 더 이상 보살피지 못하게 되면서 고심 끝에 함께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 따라 간호사의 방문 수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워낙 다양한 복지 서비스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당장, 광주·전남 지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2381명이 한 명당 367.5명의 대상자를 돌봐야 하는 복지 현실도 무관하지 않다.

현재 담당 인력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들을 제대로 돌보고 살필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자신이 복지서비스 혜택 대상인지 아예 모르거나 알고도 기준이 까다로워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한 구청 관계자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돌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직접 찾아내 복지 혜택을 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복지 혜택이 골고루, 소외되지 않고 펼쳐지기 위해서는 전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증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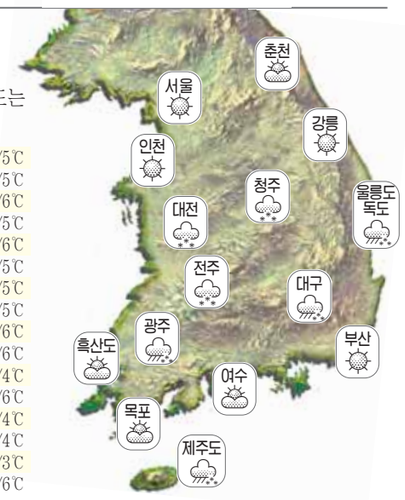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0분 해짐 17시 21분 | 달뜸 13시 24분 달짐 01시 25분

찬바람 쌀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또는 눈 오는 곳 있겠다.

광 주	비또는눈	1/5℃
목 포	구름많음	2/5℃
여 수	구름많음	2/6℃
나 주	비또는눈	-1/5℃
완 도	구름많음	3/6℃
구 례	비또는눈	-2/5℃
강 진	구름많음	1/5℃
해 남	구름많음	1/5℃
장 흥	구름많음	0/6℃
순 천	구름많음	1/6℃
영 광	비또는눈	1/4℃
진 도	구름많음	3/6℃
전 주	눈	1/4℃
군 산	눈	1/4℃
남 원	눈	-2/3℃
흑산도	구름많음	5/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5m
먼바다	서~북서	1.5~3.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먼바다	서~북서	1.5~3.0m

감기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보통	낮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5~3.0m
먼바다	서~북서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먼바다	서~북서	2.0~4.0m

	밀물	썰물
목포	08:56 21:20	01:38 14:04
여수	04:02 16:29	09:53 22:5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날 씨						
최저/최고	-2/8	-2/4	-3/5	-2/6	-1/7	-1/8

국민 10명중 6명 "암검진 받았다"

10년 새 26% 급증

암 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암 검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86%는 국가가 제공하는 암 검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우리나라 성인 4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2013년 암 검진 수검행태 조사'를 발표하고 올해 암 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이 64.7%로 나타나 조사가 시작된 2004년보다 25.9% 포인트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암 종류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위암 73.6%, 자궁경부암 67.0%, 유방암 59.7%, 대장암은 55.6%였으며 간암 검진의 수검률은 33.6%로 다른 암에 비해 수검률이 낮았다. /연합뉴스

장흥 자연산 굴 손질 10일 장흥군 용산면 남포마을 바닷가에서 마을 주민들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자연산 굴을 다듬고 있다. 장흥산 굴은 1kg에 1만 20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남구 시각장애인 60명에 점자 번역 주민등본 등 전달

광주시 남구는 10일 광주 지역 시각장애인 60명에게 점자로 번역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전달했다.

남구는 지난 2011년부터 관할 지역 시각장애인(1215명)을 대상으로 점자로 된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공해오고 있다. 현재 207세대가 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2순환도로 항소심 첫 조정 결렬

투자사·광주시 서로 거부…광주고법 20일 2차 조정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감독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사업자와 광주시가 조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10일 오후 광주고법 제1형사부(수석부장판사 장병우) 심리로 진행된 첫 조정기일에서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와 광주시 모두 각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서로 수용하지 않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조정은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재판부에만 조정안을 내고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애초부터 양측 모두 조정에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 조정 쟁점사항을 양측에 제시한 뒤 다시 검토해 볼 것을 요청했으며 다음 조정기일은 오는 20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3차 조정기일을 지정하지만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단 재판부는 선고기일 지정 이후에도 양측이 합의 가능성을 제시할 경우 다시 조정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맥쿼리가 투자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감독명령과 이익 귀속처분에 대해 사업자 측은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광주시는 재무상태를 원상회복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미세먼지, 하루 두차례씩 예보

16일부터 매일…내년엔 광주·전남 등 전국 확대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당국의 예보기능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광주일보 12월 6일자 6면〉에 대해 환경부가 하루 두 차례씩 미세먼지를 예보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등에 국한된 미세먼지 예보 지역은 내년 초,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권과 경상권, 제주권 등 전국으로 확대된다.

10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5단계 등급 중 '약간 나쁨' 이상일 때만 예보문을 발표했으나 오는 16일부터 등급과 무관하게 매일 미세먼지 예보를 하기로 했다.

또 하루 한 번 하던 예보 횟수도 내년 2월부터는 두 차례로 늘리고 예보 지역도 호남권, 경상권, 제주권까지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 예보는 시기를 앞당겨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실시간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미세먼지 경보제'도 2015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또, 일반인이 미세먼지 예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일기예보, 환경부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할 계획이다. 오는 26일부터는 대기질 정보사이트인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 문자 서비스 항목을 추가해 휴대전화로도 어디서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박정렬기자 halo@·연합뉴스